즉시 배포용: 2018 년 1 월 11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류 구매을 위한 가짜 신분증 사용에 관한 2017 년 체포 건수 신기록에 대해 발표

가짜 신분증을 압수하는 주 정부의 노력이 3 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

2017 년에 체포된 840 명 이상의 미성년 뉴욕 주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7 년에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려다 체포된 합법적 음주 연령 미만인 사람의 수가 신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연중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의 수사관들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이 주 및 지역의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뉴욕주 전역의 주점, 식당, 공연장 및 주류 소매업체에서의 미성년자 음주 및 가짜 신분증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부는 미성년자들이 그들 자신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까지 망칠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종종 피할 수 없는 비극을 몰고 옵니다. 뉴욕주는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키 위해 주 전 지역의 불법 행위를 계속해서 단속할 것입니다."

2017 년 지역별 가짜 신분증 체포 건수 및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기소된 주류 판매 면허 소지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가짜 신분증
주도 지역	63	152
센트럴 뉴욕	83	133
핑거 레이크스	28	238
롱아일랜드	103	239
미드 허드슨 밸리	142	27

모호크 밸리	23	-
노스 컨트리	39	15
뉴욕시	414	-
서던 티어	45	-
웨스턴 뉴욕	91	39
합계:	**1,031**	**843**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수사관들은 지난 2017 년,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소지한 혐의로 843 명을 기소했습니다. 또한, 171 명의 사람이 합법적 음주 연령이 아닐 때 음주를 함으로써 주류관리법(Alcohol Beverage Control law)을 위반하여 법정에 소환되었습니다. 지난 2016 년에는 818 명이 가짜 신분증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2015 년에는 758 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더불어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은 지난 2017 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주류 판매 면허 소지 소매업자 1,031 명에게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주류관리청(SLA)은 또한 미성년자 및 술에 취한 고객을 상대로 하는 주류 판매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알코올 교육 인지 프로그램(Alcohol Training Awareness Program, ATAP)을 통해 법의 준수를 촉진합니다. 주류 판매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원들이 이수한 알코올 교육 인지 프로그램(ATAP) 교육 건수는 2011 년 5,803 건에서 2017 년 18,881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류관리청 (SLA)과 2017 년 8 월에 발표된 미성년자 음주에 대처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레스토랑 타번 연합회(Empire State Restaurant & Tavern Association)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무료 알코올 교육 인지 프로그램(ATAP) 훈련을 받는 400 명 이상의 사업체 소유주와 500 명 이상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더 적은 수의 사람이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다 체포되고 더 많은 수의 사람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다 기소됨에 따라 단속된 가짜 신분증의 총수는 지난해 862 개에서 762 개로 줄었습니다.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의 대행 위원장 겸 주 자동차부(DMV)의 Terri Egan 수석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미성년자 음주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짜 신분증 혹은 타인의 신분증으로 주류를 구매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체포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류관리청(SLA)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손에 주류가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것은 뉴욕주 주류관리청(New York State Liquor Authority)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희는 Cuomo 주지사님의 지도력하에, 불법 주류 판매를 단속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돕는 자동차부(DMV),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 주

경찰청(State Police)을 포함한 주 기관들과 저희의 노력을 조율함으로써 우리의 자원을 눈에 띄게 증가시켰습니다."

뉴욕주는 Cuomo 주지사의 지도력하에 미성년자 음주 근절 및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주류 구매를 예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015 년 8 월 26 일, 주지사는 캠퍼스로 복귀하는 대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가짜 신분증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에 관해서 경고했습니다.

George P. Beach II 뉴욕주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경찰청(State Police)은 미성년자 음주를 근절하고 미성년자 음주가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고 및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안전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희는 미성년자 음주를 예방하고 발견하며 체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New York State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미래에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운전과 함께 행해질 시 특히 위험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미성년자 음주를 단순히 십대들의 짓궂은 통과의례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미성년자 음주를 예방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신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 수사는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자동차부(DMV)의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은 지난 2017 년, 미 자동차관리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로부터 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